

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 현황 점검

-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, 장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(FPC) 운영 현황 점검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8일(목) 전남 장흥에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(이하 ‘FPC*’)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했다.

*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(FPC,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& Marketing Center)

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는 시설로, 장흥 FPC는 어업회사법인 ‘순수 해작’이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20년 준공하였으며, 김을 주력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다.

강 장관은 FPC를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“수산물 유통 거점화를 통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.”라며, “김 산업 육성과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44-200-5440)
		담당자	사무관	윤기준 (044-200-5444)